

박완서 소설 속 미군 피엑스의 미국 표상과 인간상품화 양상

최선영*

목 차

1. 서론
2. 미군 피엑스, '아메리카-아케이드'와의 만남
3. 고아와 상이군: 연민의 판매와 위계의 내면화
4. 피엑스 걸: 연애의 판매와 탈주의 욕망
5. 결론

〈국문초록〉

박완서는 한국 소설사에서 6·25이라는 문학적 불모지를 관통하며 전시 민중의 일상과 삶의 조건, 내면화된 상처를 가혹적으로 증언했다. 그중에서도 박완서 자신이 일했던 미8군 피엑스 경험은 복수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1950년대의 피엑스는 전시 한국인이 맞이했던 최초의 '미국 공간'이었으며 그 안에서 발현되는 동경과 굴욕이라는 정신적 경험은 새로운 근대 질서를 맞이하는 전시 한국인의 증언과 다름없다. 하여 본고는 『나무』과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중심으로 전시 피엑스의 존재 형식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한국인의 존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기와 6·25 전쟁은 미국을 한국의 생존을 기댈 기둥이자 청사진으로 격상시킨다. 그 과정에서 전시 서울 명동에 자리한 미 8군 피엑스와 그곳의 미제는 새로운 상징가치를 부여받는다. 쇼윈도 유리의 유토피아적 성질에 힘입은 미국산 상품들이 '유토피아 아메리카'의 표상이라면 그것을 전시하고 과시하는 피엑스는 곧 '아메리카-아케이드'와 다름없다. 이 앞에서 전시 한국인들은 매혹과 함께 상대적

*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

박탈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 낙차는 한미 위계를 보여주는 감각의 조감도인 동시에 근대 전환기의 한국인을 자기 타자화 구조에 갇히도록 한다.

한편, 피엑스 안에서 전시 한국인들은 '인간상품'으로 표상된다. 이는 자기 타자화의 도식적 결과라기보다는 '아케이드'라는 근대적 공간에서 발현되는 일종의 표현이자 내면화된 인식에 가깝다. 피엑스 속 고아원 직영매장의 '고아와 상이군' 이미지는 미국의 '도네이션'을 유도하는 '연민상품'이다. 팔아먹을 것이 고갈된 전시 한국의 극단적 상황과 전쟁의 고통마저도 미군의 '거스름돈'으로 치환되는 연민상품은 전시 한국인에게 굴욕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 굴욕감은 곧 국가 간 위계의 역학과 함께 한국인에게조차 내면화된다. 이 감정은 근대 한국인들의 (서구)세계에 대한 주관적인 대외인식과 그에 비춘 자기 인식의 은유이자 표상으로 잔존한다.

피엑스의 판매대리인인 '피엑스 걸'은 '전후 가장'으로서 경제력과 영어 능력을 겸비한 아프레 걸에 속한다. 이 여성들은 마네킹으로써 미군에게 타자화되고 '양갈보' 낙인으로 한국인에게 다시 타자화된다. 전근대적 가치관에 의해 배제된 이 여성들이 진정으로 판매하는 것은 '연애 상품'이다. 그녀들은 미군과의 연애를 통해 '유토 피아 아메리카'로의 탈주 즉 '미국 행 티켓'을 꿈꾼다. 피엑스 걸들의 번번한 탈주 실패는 '유토피아 아메리카'의 허위를 확인하게 해준과 동시에 그녀들을 텅 빈 기표로 남겨 놓는다. 그러나 전근대 사회에서의 탈주 에너지와 그에 걸맞은 근대적 능력의 성취라는 점에서 피엑스 걸들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피엑스, 아케이드, 아메리카 드림, 인간상품, 피엑스 걸, 탈주, 환등상, 연민상품, 연애상품, 근대, 물신

1. 서론

박완서는 한국 소설사에서 6·25전쟁이라는 문학적 불모지를 관통한 작가다. 이때의 관통이란 전쟁이라는 역사의 강력한 소용돌이 속에서 소설을 이데올로기의 옹호나 역사 고발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전쟁이 극도의 좌절과 절망, 허무와 불안의 정서를 시대의 주조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아도¹⁾ 박완서의 소설은 비교적 자유로운 정서와 함께 사적 역사의 재현으로서의 문학을 지켜냈다. 그것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전쟁을 치러야 했던 박완서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²⁾ 전쟁과 분단, 근대화 과정을 온몸으로 겪어낸 그의 작품 세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역사를 체현하고 있다.³⁾

박완서는 그의 등단작인 <나목>(1970)과 <한발기>(1971),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2) 등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전시의 풍경을 변주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함몰된 세계와 인간상을 관념적으로 풀어내는 대신 전시를 살아가는 민중들의 일상과 세태를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그들의 삶의 조건과 내면화된 상처를 정신적으로 증언하는 데에 주력했다. 전쟁과 일상이라는 일견 모순적인 시간의 합치는 거시역사에 묻혀 있던 사적 역사를 떠오르게 한다. 그리하여 ‘삶의 시선’이라는 인간적 해석의 틀로 전쟁과 근대의 의미를 밝히는 과정이야말로 박완서 문학의 백미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박완서는 실질적인 전쟁경험을 토대로 보다 가축적인 전시의 풍경을 펼쳐냈다. 특히 박완서 자신이 일했던 미 8군 피엑스(PX: Post eXchange)에서의 경험은 복수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1950년대의 피엑스는 서울에 주둔한 미군 매점, 즉 전시의 일반 한국인들이 맞이한 최초의 ‘미국 공간’이었다. 전시 한국인은 이 안에서 삶을 도모하고 일상을 지속하는 동시에 한미의 국가 역학이라는 위계를 감지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 발현되는 동경과 굴욕이라는 정신적 경험은 새로운 근대 질서를 맞이하는 전시 한국인들의 증언과 다름없다. 때문에 전시 피엑스 속 사적 역사는 역으

1) 전승주, 『1950년대 한국 문학비평 연구: ‘전통론’과 ‘민족문학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23권 0호, 민족문학사학회, 2003, 301면.

2) 기억에 의한 글쓰기, 더구나 ‘순전히’ ‘기억에만’ 의존하는 글쓰기란, 소설밖에 없다. (김윤식, 『내가 읽은 박완서』, 문학동네, 2013, 203면.)

3) 강용운, 『박완서 작품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기억과 주체의 형성』, 『인문학술』 1권 1호, 인물학술원, 2018, 125면.

로 피엑스가 근대적 세계(미국)의 표상임을 증명하고 한국인의 근대적 정체성을 예견하는 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기존 박완서 문학의 논의들은 ‘아파트’나 ‘도시’와 같은 공간 혹은 ‘중산층’ 정체성 문제와 같은 1970년대에 집중하고 있거나⁴⁾ 1950년대를 작가의 기억 재구성이라는 면에서 주로 다룬 편이다.⁵⁾ 이에 반해 미국과 전시 한국의 관계성과 관련하여 미군 피엑스를 조명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부터 시작되었다.

신수정에 따르면 피엑스는 전쟁의 국제적 외면과 한미의 낙차가 가져오는 모멸감을 인지하는 공간으로, 그 안의 삶의 군상들은 미국화의 과정으로 재현되는 왜곡된 한국의 근대화를 드러내는 표상이다. 특히 피엑스의 세일즈걸은 전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여성가장이면서,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 여인’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비판과 보호라는 이중적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박완서는 이 모순적인 현상을 재현하며 근대에 행해졌던 배제 이데올로기와 이에 포섭되지 않으려는 여성들의 힘을 밝힌다⁶⁾.

나보령은 서울의 공간 질서 해체를 다루며 피엑스를 전방이 지척인 도시에서 삶이 발산하는 온갖 색채와 소란, 활기가 존재하는 곳으로 본다. 또한

-
- 4) ‘아파트’나 ‘도시’, ‘중산층’에 관한 연구들은 종합적으로 ‘근대’를 표명하기 위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는 오창은(『아파트 공간에 대한 문화적 저항과 수락』, 『어문론집』 제33권, 중앙어문학회, 2005.), 정혜경(『1970년대 박완서 장편 소설에 나타난 ‘양옥집’ 표상』, 『대중서사연구』 제25권, 대중서사학회, 2011.), 박철수(『박완서 소설을 통해 본 1970년대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주거 공간의 인식과 체험』,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30권 3호, 대한건축학회, 2014.), 차미령(『생존과 수치-1970년대 박완서 소설과 생존주의의 이면』,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7권, 한국현대문학학회, 2015.), 신수정(『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동대문시장의 젠더정치학과 전후 중산층 가정의 균열』, 『한국 문예비평연구』 제51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등을 들 수 있다.
- 5) 이에 관하여는 강진호(『기억 속의 공간과 체험의 서사』, 『아시아문화연구』 제28권,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2.)와 이평전(『한국전쟁의 기억과 장소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65권, 한민족어문학회, 2013.) 등의 연구들이 있다.
- 6) 신수정, 『박완서 소설과 전시 여성 가정의 미군 PX경험』,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7권 2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피엑스는 전시 서울 사람들에게 미국의 부를 확인시켜주는 주는 냉전의 쇼케이스와도 같다. 박완서는 미국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생존과 상류층으로의 편입을 꿈꾸는 노골적인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화자의 경멸을 드러낸다. 그러나 동시에 피엑스는 죽음의 공간인 ‘계동’과 비교하여 달러를 기반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삶의 에너지와 강인한 생활력을 드러내는 무대임은 틀림없다.⁷⁾

본고는 이 두 편의 선구적인 논의에서 밝힌 한국 근대화의 표상이자 미국의 부를 과시하는 쇼윈도로서의 피엑스의 의미를 숙지하고 그것이 전시 한국인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특히 피엑스의 공간적 묘사와 서사가 뚜렷하게 드러난 <나목>과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⁸⁾를 중심으로 아케이드로서의 피엑스의 존재 형식이 표상하는 미국의 유토피아성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한국인의 인간상품화 양상의 의미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이 논의는 벤야민이 19세기 초 파리의 파사주(아케이드)를 바라보던 시선과 그 결을 같이 한다. 파리의 아케이드는 ‘거울 도시(looking-glass city)’로서 균중을 압도하는 동시에 기만한다. 이때 균중은 스펙터클의 일부가 되면서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로 비취진다. 생산자의 이미지가 지워진 도시 안에서 계급과 생산관계는 상품 뒤로 은폐된다. 파리의 이 스펙터클이 일종의 ‘환등상’이라면 상품은 시장에 드러난 ‘물신’이다. 진열-중-상품은 실제적인 의미가 아닌 순수한 재현적 가치로 등장한다.⁹⁾ 상품물신이 전면화되는 사

7) 나보령, 『허물어진 “문 안”』,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9권 4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8) 박완서, 『나목』, 세계사, 2003;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세계사, 2003. 본고는 앞으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그 산』으로 줄여 부르도록 한다. 또한 박완서의 인용 작품은 『나목』을 1로, 『그 산』을 2로 기재한 후, 페이지만 표기하도록 한다. 만약 『나목』의 23면을 인용한다면 (1:23)으로 표기한다.

9) 진열중인 상품은 섹스에서 사회적 지위에 이르기까지 욕망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변형될 수 있다. 즉 진열-중-물신인 상품은 사적 소유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균중을 매료했다. (수잔 벅 모스,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김정아 역, 문학동네, 2004, 115~116면 참조)

회에서는 인간 역시 상품으로 취급당한다. 특히 ‘산책자’와 ‘창녀’와 같은 ‘물화된 인간’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발현된 하나의 ‘문제적 표현’이었다.¹⁰⁾ 본고는 파리 아케이드의 존재 형식과 그 안에서 벌어진 인간상품화 양상이 전시 한국의 미군 피엑스에서 변주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 그에 내포된 근대적 함의를 찾으려 한다.

해방기와 6·25 전쟁을 거친 후 미국은 국가적 생존을 기댈 기둥이자, 풍요로운 재화, 배움의 청사진으로 격상된다. 그 과정에서 전시 서울 명동에 자리한 미 8군 피엑스와 그 안에 유통되던 미제는 새로운 상징가치를 부여 받는다. 본고는 유토피아적 환상을 제공하는 쇼윈도의 미국산 상품들이 곧 ‘유토피아 아메리카’의 표상임을 밝히고 ‘아메리카-아케이드’로서의 피엑스가 전시 한국인들에게 매혹과 상대적 박탈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스스로를 타자화하는 구조에 빠져든 전시 한국인들이 ‘아메리카-아케이드’ 안에서 ‘인간상품’으로 존재하는 양상을 밝힌다.

‘고아와 상이군’의 이미지는 미군의 ‘도네이션’을 유도하는 ‘연민 상품’으로 팔아먹을 것이 고갈된 전시 한국의 극단적 상황을 드러내 준다. 본고는 이 일방향적 연민이 전시 한국인에게 가져다주는 굴욕을 확인하고 국가 간 위계의 역학과 함께 내면화되는 과정을 규정하고자 한다. 한편, 피엑스의 판매대리인인 ‘피엑스 걸’은 ‘전후 가장’으로서 경제력과 영어 능력을 겸비한 근대의 새로운 여성상이다. 본고는 전근대적 가치관에 의해 배제된 이 여성들이 어떻게 ‘연애 상품’을 판매하여 ‘유토피아 아메리카’로의 탈주를 꿈꾸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그녀들의 실패가 보여준 ‘유토피아 아메리카’의 허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그녀들의 탈주 욕망과 에너지를 성찰해보고자 한다.

10) 강수미, 『아이스테시스-발터벤야민과 사유하는 미학』, 글항아리, 2011, 177면 참조.

2. 미군 피엑스, ‘아메리카-아케이드’와의 만남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미국은 한국이 근대의 전환점에서 맞이하는 강력하고 복잡한 축이었다. 해방기 한국인에게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해방군인 동시에 점령군으로서 하나의 국가 그 이상으로 이해됐다. 해방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미국은 ‘글로벌한(global)’ 보편의 지위에 있었으며 이는 ‘아메리카(보편)-우리(특수)’라는 일종의 인식적 도식을 만들어냈다.¹¹⁾ 한국인에게 미국에 대한 인식의 틀은 해방기에 기원을 두지만 이렇듯 우호와 동경이라는 감정적 틀은 6·25 전쟁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고착되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지원된 막대한 원조 물자와 같은 구체적인 재화의 힘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추상적 이념이 현실 속에 현현한 형태로 각인된 것이다¹²⁾. 당시 유례없이 불평등한 한미 군사 관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없던 바 아니었지만¹³⁾, 미국은 이미 생존의 불안을 기댈 기둥 혹은 배움의 청사진으로 격상된 후였다. 이 감정의 대상은 ‘미국적인 모든 것’ 특히 구체적인 사물인 ‘미제’에 유효하게 발현, 확산되었다. 그리고 그 절대적 위용을 과시하듯 현재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에 자리했던 ‘미 8군 피엑스(PX)’는

11) 장세진, 『상상된 아메리카』, 푸른역사, 2012, 21면 참조.

12) 장세진, 앞의 책, 131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아메리카식 민주주의와 열면 헤게모니 경쟁을 벌였던 소비에트식 인민민주주의의 효력은 제로의 점멸 시점에 다다른다. (같은 책, 157면.) 한국사회에서의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압승 또한 강력한 미국의 이미지로 치환될 수 있다.

13) 1950년 7월, 전시라는 특수 상황에서 미대사관과 이승만은 각서 교환이라는 긴급 형식으로 ‘대정협정’을 수립한다. 이 협정에 대한 지적으로는 첫째, ‘현 작전 상태가 지속하는 동안’ 맥아더에게 지위권을 이양하는 문제, 대전협정에 의한 미군의 형사 관할권 문제의 유효성, 그리고 한미행정협정SOFA(Statement of Force Agreement)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세진의 논의(앞의 책, 416면.)를 참조할 것. 미국과 한국의 불평등 관계는 일찍이 해방기에서도 확인되었던 바 있다. 미국은 1945년 9월 일본군의 무장해체를 위해 인천을 통해 한국에 진주한 후 남한의 기본적 정치구조를 결정짓고 인민공화국을 승인하지 않는 등의 부정적 ‘결정들’을 내렸다.(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김자동 역, 일월서각, 1986, 185면 참조.)

전시체제 한국인들을 화려하고 매혹적인 미제의 세계로 이끌었다.¹⁴⁾

박완서의 두 장편소설 <나목>과 <그 산>의 이경과 ‘나’는 미군 피엑스의 초상화부에서 근무를 하는 젊은 여성들이다. 두 작품 모두 자전적 색채가 짙은 만큼 이경과 ‘나’의 캐릭터는 이십 대 초반의 나이와 전시의 여성가장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특히 피엑스 공간과 미제를 바라보는 그들의 동경과 굴욕의 이중적 심리는 마치 한 인물의 그것처럼 겹쳐진다.

피엑스 안에서 이경과 ‘나는 미군에게 가족이나 애인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호객을 하며 생활을 꾸려 나간다. 그들이 미군 피엑스에서 일하게 된 건 대단히 좋은 기회처럼 여겨진다. 폐허가 된 서울에서 그나마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박완서는 피엑스를 처참한 노동의 현장이 아닌 생존이 보장되는 안온한 공간으로 비춤으로써 그에 대한 보다 담담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전시 한국인에게 피엑스는 “알리바바가 발견한 동굴만큼이나 별의별 값 나가는 물건들로 가득 찬 걸로 알”(1;144) 정도로 상상 속 별천지나 다름없었다. 이는 당시 한국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유사한데, 한국인에게 미국은 해방을 가져다준 우방이자 경제원조를 제공한,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중심이 되는 국가로 인식되었다.¹⁶⁾ 피엑스는 일종의 복제된 미국 공간이자 이미지로 전시 한국인을 매혹했다. ‘알리바바의 동굴’ 즉 별세계와 같은 ‘풍요로운 유토피아’는 정치적 추상이나 진영의 거대담론이 아닌 피엑스라는

14) 미 8군 메인 PX가 오늘날의 명동 신세계 백화점, 당시의 동화백화점 건물을 사용하게 된 경위는 적산관리처의 명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동화백화점은 전시에 미군 부대 매점으로 사용되다가 1954년 미군 PX가 용산으로 이전한 뒤 정식으로 미군에게 인도를 받는다. 미군 PX가 서울에 자리 잡은 과정과 한국 근대화의 속도로서의 미군 PX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신수정의 논문을 참고할 것.(신수정, 앞의 글, 56~62면 참조.)

15)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1950년 서울시의 쌀값은 15원이었다.(www.si.re.kr. 참조) 『그 산』의 ‘나는 PX에서의 첫 월급으로 사십만 원을 번다. 이는 전후 급상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16) 유영익, 『한국인의 대미인식』, 민음사, 1994, 226면.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가시적인 상품들로 표상된 것이다¹⁷⁾.

(가) 언제 보아도 싫지 않은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의 화사하고 매력적인 상품들, 그 풍요한 상품들을 후광처럼 등지고 서서 저녁 화장에 여념이 없는 세일즈 걸들. (1:14)

(나) 그 다음부터는 미제 물품을 취급하는 진짜 피엑스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금의 안목으로는 아무 것도 아닌 게 그때는 눈이 돌게 휘황한 별세계였다. 주야로 포성이 그치지 않고 밤이면 북쪽 하늘에 전쟁의 섬광이 불길하게 명멸하는 이 최전방 도시에 이런 고장도 있었던가, 마치 흑백 영화에서 갑자기 총천연색 영화의 세계로 떠다밀린 것처럼 얼떨떨하고 황홀했고, 뭘지 모르게 억울하기도 했다. (2:186)

(가)의 이경은 <메이드 인 유에스에이>의 화사하고 매력적인 상품에 빠져든다. “럭키스트라이크와 카멜 담배, 밀키웨이 초콜릿, 럭스 비누, 나비스코 비스킷, 참스 캔디, 폰즈 크림, 콜게이트 치약”(2:174)과 같은 풍요한 상품들은 쇼윈도 안에서 세일즈 걸의 ‘후광’과 같은 빛마저 내뿜는다¹⁸⁾. 투명한 유리의 쇼윈도에 진열된 상품의 매혹이라는 점에서, 미군 PX는 마치 19세기 파리의 ‘아케이드’와 같은 ‘환등상(Phantasmagorie)’의 역할을 수행한다.¹⁹⁾ 애당초 ‘PX’의 이름 자체가 ‘Post eXchange’라는 점에서 미루어보았

17) 인간이 자신의 근거를 마련하는 물적 토대는 바로 공간이다. 공간은 ‘생산관계 및 계급관계를 표상하며 정신의 영역과 역사적 정체성 형성으로 나아간다.(앙리 르페브르, 『사회적 공간』,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피엑스의 공간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앙리 르페브르의 논의를 빌릴 수도 있을 것이다. 피엑스는 한미 역학이 재현되고 실행되는 ‘사회적 공간’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이 공간은 미국이라는 지배계급의 지배담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기 위하여 매혹과 화려함이라는 선진의 이미지를 갖춘다.

18) 세일즈 걸은 피엑스에 진열된 또 다른 상품에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19) “환등상”은 벤야민이 19세기 파리의 스펙터클을 분석하며 사용한 단어이다. 환등상이란 착시를 이용한 환등 유희으로, 상들이 수시로 크기를 바꾸며 다른 상들과 뒤섞인다.(수잔 벅 모스, 앞의 책, 115면.) 환등상의 번쩍거림은 상품의 물신적 성격 못지 않게 관념론

을 때, 이 공간의 1차적 존재 목적은 물건에 있다. 그러나 일상품에 지나지 않는 미제들은 전시 한국인의 시선을 거치며 다른 차원의 상징가치를 부여 받는다. “팔아먹을 것의 고갈”(1:125)이라는 전시체제의 상실감과 가난에 허덕이는 한국인의 삶이 ‘흑백영화’라면 PX공간 속 물건들은 그것과 정확히 대치되는 것, 이를테면 ‘충천연색 영화’의 세계였다. 평생에 처음 충천연색 영화를 봤을 때처럼, ‘얼떨떨하고도 황홀한’ 매혹은 ‘쇼윈도’라는 유리 매체를 통하여 가중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적이며 빛나는 속성은 그 자체로 유토피아적 환상을 제공한다.²⁰⁾ “공장에서 왔을 때는 거저 쥐도 안 입게 생긴 인조 파자마”(2:186)가 쇼윈도의 조명 아래에서 “고대 중국의 왕실 의상처럼 화려 장중해 보였다”(2:186-187)는 묘사를 보라. 한국의 생산품도 이렇터인즉, 쇼윈도에서 빛나는 미제는 곧 ‘유토피아 아메리카’요, 승배의 대상인 ‘물신’일 터였다.²¹⁾

전시 한국인에게 피엑스의 근본적인 속성은 매혹과 환상이었다. 피엑스는 한국인에게 ‘아메리카-아케이드’ 였으며 쇼윈도의 미제는 곧 전시된 ‘유토피아 아메리카’의 상징이었다. 그 속에서 한국인은 피엑스를 ‘한국 속의 미국’이 아닌 ‘미국 속의 한국(인)’이라는 환상적 도치를 경험하게 된다. 이 도치가 제공하는 유토피아적 청사진은 곧 ‘미국적인 것’에 대한 동경, 특히 물질적 부에 대한 갈망과 다름없다.

미학의 ‘아름다운 가상’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 환(등)상의 기능은 미화하는 데에 있다.(발터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 1』, 조형준 역, 새물결, 2005, 66~67면 참조) 벤야민이 지시했던 환등상의 은폐와 미화의 속성은 PX공간이 가지고 있는 한미의 불평등한 역학관계와 한국인 차별을 ‘미제’의 선진적 광휘로 가려버린다.

20) 19세기 유럽 전역의 수도들은 극적인 변신을 거쳐 그야말로 번쩍이는 진열장이 되었다. 계몽주의는 마치 “천상”의 도시를 만들 것을 종용했는데, 물질적 행복은 지상낙원 건설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였다.(수잔 벅 모스, 앞의 책, 114~115면 참조)

21) 인간의 노동의 산물인 상품이 “상품의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사물적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자체 생명을 가진 자립적인 것들로 등장해 상품과 상품 간의 관계로 맺어지거나, 상품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물신숭배(Fetischismus)”다.(강수미, 앞의 책, 172면.)

우리 스스로 미국에 덧씌운 유토피아적 이미지의 이면엔 ‘우리의 것’에 대한 자기 타자화의 그림자가 있다. 유토피아가 현실의 부정을 내포하듯 미국에 대한 환상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나)의 ‘나’는 전시 서울과 피엑스를 오가며 낙차를 인식한다. ‘나’는 피엑스라는 별세계에 대한 경쟁심이나 동경 대신 알 수 없는 ‘억울함’을 느낀다. 전시 한국에게 미국의 지원이 선택사항이 아니었던 것처럼, 미제가 표상하는 미국 이미지의 매혹은 전시 한국인들로서는 거부하기 힘든 힘ियो 꿈꾸지 않을 수 없는 부유함이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이 수동적 매혹에 대한 직관적 감각에 가까운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 번 더 해석될 수 있다. 전시 한국인인 ‘나’는 “우리의 것이랍시고 내놓은 물건들”(1;125) 즉 시장바닥의 ‘대소쿠리, 담뱃대, 지게, 담배기’(1;125)와 피엑스의 화려한 진열대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때에 느끼는 고통스러운 낙차야말로 국가적 위계에 대한 감각의 조감도일 것이다.

근대 국민국가(Nation State) 수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던 전시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서술하는 내러티브(narrative) 방식에 있어서 아메리카라는 상상의 거울이 ‘반드시’ 필요했다.²²⁾ 이 ‘상상의 거울’은 박완서가 주시한 피엑스 공간과도 치환된다. ‘아메리카-아케이드’가 내뿜는 유토피아적 환상은 전시 한국인에게 매혹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경험하게 했다. 전시 한국인은 이 유토피아 이미지에 매료된 만큼, 그것을 소유할 수 없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 타자화의 구조에 빠져들었다.

3. 고아와 상이군 : 연민의 판매와 위계의 내면화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군 피엑스는 전시 한국인들에게 ‘아메리카-아케이드’를 통한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경험하게 했다. 그것은 ‘따라가야 할 미래’

22) 장세진, 앞의 책, 21면.

인 동시에 ‘달지 못할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파리의 아케이드가 상품의 사용가치와 생산질서의 결합을 은폐했듯,²³⁾ 전시 서울의 ‘아메리카-아케이드’ 역시 쇼윈도의 뒷면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파리의 아케이드의 이중적 성질은 서울의 피엑스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광에도 불구하고,²⁴⁾ 한국인은 원칙적으로 미제는 고사하고 달라마저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메리카-아케이드’ 속 자유로운 행인이자 시민은 오로지 미군으로 그들이야말로 공식적인 미제의 소비와 소유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²⁵⁾ 반면, 미군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한국인들은 판매 대리자 혹은 호객꾼으로 배제될 뿐이었다. 피엑스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입장 시에는 패스를 보이고 나올 때는 수색을 당해야 하는”(2:186) 경계의 대상으로 구분되었다. 한국인은 이에 대한 거부 대신 블랙마켓을 통해 미제를 소유하는 방법을 택했다.²⁶⁾ 이는 한미의 역학관계와 궤를 같이하는데, 소외된 한국인은 ‘아메리카-아케이드’ 안에서 일종의 상품으로 표상된다.²⁷⁾ 이는 도식적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아케이드’라

23) 발터 벤야민, 앞의 책, 66~67면 참조.

24) 박완서는 특히 『그 산』을 통하여 전시의 한국인들의 미제에 대한 상품물신적 열망을 드러냈다. “극도로 궁핍하던 시대여선지 미제는 다 먹고 난 껍질까지 버리기가 아까웠다”(2:213), “여복해야 잠잠은 척하는 신사도 어찌다 럭키스트라이크를 한 갑 사서 피우고 나서는, 그 맛보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과시할 수 있는 품위를 잊지 못하여 그 갑에다 국산 담배를 넣어 가지고 다니겠는가”(2:174)

25) 아케이드는 본래 개인이 소유하되 모두가 사용하는 통로로 쇼윈도의 상품을 통해 행인들을 유혹했다.(수잔 벅 모스, 앞의 책, 117면.)

26) 블랙마켓으로 미제를 빼돌리기 위한 청소부 노동자들의 행위는 대단히 인상적이다. “청소부 이즘마들이 쓰레기가 담긴 커다란 상자를 밀고 들어오더니 치마를 훌러덩 걷어 올리곤 내의는 종아리까지 내려 허연 속살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휴지통 속에서 치약이니 비누니 꾸역꾸역 꺼내더니 종아리서부터 쌓아올리기 시작했다. 한 층 쌓고는 내복을 그만쯤 올려서 고무줄로 동이고 또 한 층 쌓고는 고무줄로 동이고 하여 삼시간에 종아리를 지나 엉덩이 허리를 입혀갔다.”(1:33) 금지의 속성이 그러하듯, 미제를 향한 한국인들의 동경의 감정은 곧 욕망으로 뒤집힌 채 강력한 물신화를 낳는다.

27) 상품물신이 전면화되는 사회에서는 당연한 듯이 인간도 상품처럼 취급당한다. 벤야민은 마르크스를 따라, 공장의 컨베이어 생산체제 노동 조건이 노동자의 노동을 상품화한

는 근대적 공간에서 발현되는 일종의 표현 혹은 내면화된 인식에 가까울 것이다.

<그 산>의 ‘나’는 미군 피엑스 근무 첫날 ‘허 사장’과 함께 한국물산부 매장을 돌아다니며 사장과 점원들에게 인사를 돌린다. ‘한국물산’이라는 말이 무색한 정도로 서부영화에 나올 법한 권총 케이스나 혁대, 용이 양각된 핸드백, 엄청나게 굵은 가락지와 장신구 등을 늘어놓아 도무지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매장들 사이에서 ‘나’는 차라리 ‘고아원 직영 매장’을 유심히 바라본다.

그런 매장보다는 파자마부 바로 옆에 있는 고아원 직영 매장에서 오히려 순수한 한국 물산을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고아원에서 파견된 보모 이주머니와 공주님처럼 곱게 차려입은 예쁜 고아가 같이 지키는 이 작은 매장에서는, 대나무로 된 각종 소쿠리나 왕골로 된 반질고리 보석 상자, 작게 축소한 짚신, 지게, 달구지 등을 팔고 있어서 훨씬 한국 물산부다웠다. 그러나 그닥 잘 팔리는 것 같지는 않았고 판매보다는 그 매장에 설치된 커다란 도네이션 상자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더 되지 않았다. 도네이션을 권유하는 상자는 처참한 한국전 사진으로 도배를 한 것이었는데, 주로 장교들이 그 앞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거스름돈을 떨구면서 예쁜 고아에게 불을 비비기도 하고, 연민 넘치는 워크드 해주었다. 그런 모습이 보기 좋은데도 무슨 고약한 심보인지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절로 고개가 돌려지곤 했다. (2:188-189)

‘나’가 말하는 ‘순수한 한국 물산’은 비단 소쿠리와 짚신, 지게 등의 물품에 그치지 않는다. 매장의 실질적 수익은 공주님처럼 예쁘게 차려입은 소녀와 도네이션 상자에 도배된 한국전 사진의 처참함에서 온다. 피엑스는 ‘고아와 상이군’이라는 이미지의 ‘어림’과 ‘처참함’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전시한다. 이

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다. 벤야민이 인간 상품화의 단적인 예로 든 것은 ‘산책자’와 ‘창녀’다. 산책자는 군중과 상품을 눈요기하는 듯 보이지만 그 시간에 자신을 상품으로 전시하며 은밀히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그에 비해 창녀는 자신을 명백히 상품으로서 제시한다. 창녀는 상품을 파는 자인 동시에 상품 그 자체이며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에 대한 순수한 알레고리다. (강수미, 앞의 책, 175~177면 참조)

두 유형의 한국인들은 그 자체로 ‘연민 상품’이며 미제 상품과는 정확히 반대
 의 지점에 있다. ‘연민 상품’은 일종의 변주된 인간상품으로 연민이라는 인간
 적 감정의 전시라는 물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인에게 미제가 금단의 물건
 이자 욕망의 대상이라는 무거운 함의를 지니고 있는 반면, ‘연민 상품’은 거스
 림돈으로 치환되는 가벼운 감정의 소모품에 가깝다. 이 불균형은 한미 역학관
 계의 극단성을 증명하는데, ‘아메리카-아케이드’라는 마켓 안에서 그것은 ‘도
 네이션’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된다. 그리고 이 허위 앞에서 ‘나’는 차마 고아원
 직영매장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

‘연민 상품’ 현상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 대상이 한국인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원조에 기대고 있던 전시 한국은 미국에게 동등한 상대라기보
 다는 구원의 대상에 가까웠다. 이 구도는 전시 한국인의 감정에도 유효하며
 두 종류의 굴욕을 낳는다. 첫 번째 굴욕이 『그 산』의 ‘나’가 느꼈던 ‘연민의
 상품화’라면 두 번째 굴욕은 『나목』의 이경이 느낀 ‘연민의 자격 없음’ 즉,
 ‘연민 불가다. 초상화부에서 근무하던 이경은 어느 날 한 미군 부사관의 가족
 사진을 보게 된다. 그 순간 그는 이경에게 방종한 ‘양키’가 아닌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공감 가능한 상대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경이 느끼는 연민은 곧
 갈 길을 잃고 만다.

그가 그의 행복과 단란을 버리고 살벌한 이국의 싸움터 <갓땀 철원> <갓땀
 장단> 영하 30도 이름 모를 고지 같은 데서 끊임없이 죽음에 직면해야 한다는
 게 죄송해서 몸이 오그라들었다. 그가 만약 죽는다면 그 죽어야 하는 명분은 무엇
 일까? (...)

결국 나는 그 싸진에게 아무것도 베풀 수 없음을, 베풀음을 받는 게 제격임을
 알았다. 서글픈 한숨이 절로 나왔다. 베풀음을 받기만 해야 하는 서글픔, 베푸는
 자의 여유와 보람, 그가 낯선 땅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명분이 그런 데 있을지
 도 모른다.(1:150)

이경은 세 아이의 아버지인 미군 부사관이 낯선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송해서 몸이 오그라들’며 전쟁을 저주한다. 이경이 부사관에게 갖는 마음은 도네이션 상자에 거스름돈을 떨구는 미군의 연민보다 순정하다. 그러나 연민의 근본적 구조가 그러하듯, 이경의 연민은 부사관보다 생존의 면에서 유리하기에 발생 가능하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경의 감정 역시 ‘도네이션 상자’와 그 성질을 같이 한다. 그러나 문제는 부사관이 죽음을 앞뒀음에도 불구하고 ‘연민 상품’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피엑스 안에서 부사관은 이미 출병이라는 배품을 행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경은 서글픔을 느끼며 부사관의 ‘여유와 보람’에 대해 생각한다. 정의건 돈이건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위하여 타국의 전쟁터에 기꺼이 출병한 그의 선택은 ‘명분’을 갖추고 있다. 다시 생각하면 죽음에 대한 명분을 채길 수 있는 것도 여유요 보람인 것이다. 부사관의 여유는 생존보다 상위의 조건에서 탄생하며 이미 자국 안에서 돈으로 치환되었거나 혹은 치환 불가능한 가치다. 결국 이경은 배품을 받기만 하는 굴욕이 자신의 역할임을 받아들인다. 전시 한국인들에게 생존 이상의 정신적 조건은 전쟁과 함께 잃어버린 것이었다.

피엑스의 인간상품화 현상은 국가 간 역학관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은폐한다. 그 안에서 한국인들은 근대적 자기 정체성을 구축해 나간다. “여기가 어디라고 엽전이 달러로 물건을 사요 무엄하게시리…”(1:177) 전공 태수에게 쓰아붙이는 이경의 말에서 엿볼 수 있듯, 미국인과 한국인의 차별적 인식은 한국인에게도 스스로없이 내재화되어 있다. 전시 한국인들이 미제를 가질 수 없는 구조가 예견한 바, 피엑스 사람들이 곧잘 표현하는 ‘엽전’(한국인)과 ‘달러’(미군)의 위계는 경제적인 면을 넘어, 인간의 존재 가치마저 상징한다. 그리고 이는 근대 한국인들의 (서구)세계에 대한 주관적인 대외 인식과 그에 비춘 자기 인식의 틀의 은유요 표상이다. 이 틀은 끊이지 않는 실과 같은 기원으로,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서구 사회에 대한 호감과 동경의 감정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그 호감의 기저에는 굴욕과 자기 타자화의 감정 역시 함께 잔존하고 있다.

4. 피엑스 걸 : 연애의 판매와 탈주의 욕망

피엑스에서 태어난 또 다른 인간상품은 ‘피엑스 걸’이라 지칭되는 판매 여성들이다. 그녀들은 대표적인 전후 아프레 걸 유형으로, 고아와 상이군이라는 직접적인 전쟁 피해자들보다 복잡한 층위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하여 탄생한다.²⁸⁾ 전쟁은 가족의 해체와 미망인의 양산을 통해 여성에게 ‘전후 가장’의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이전의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해방을 선사했다.²⁹⁾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적 여성상에 갇혀 있던 전후 여성들에게 세계의 확장을 허락했지만 동시에 부재하는 남성들을 대신하여 생존에 몸부림치게 했다.

피엑스 걸은 전사라는 특수한 상황 속 부산물로 미모와 젊음, 그리고 영어 실력이라는 근대적 능력이 혼합된 새로운 여성상이었다. 직업적으로 미군을 상대해야 했던 피엑스 걸들은 “모양을 낸다는 건 곧 양키들을 겨냥한 적극적인 자기 상품화에 다름 아니라는 피엑스의 특수성”(2:237) 아래에서 이중의 타자화를 겪는다. 전시 한국에게 미국은 구원자인 동시에 그 힘의 차이로 인해 민족적 자긍심에 훼손을 가하는 점령국이기도 했다. 한국 여성에게도 미군은 꺼려 마땅한 이종이거나, 경제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양갈보’(2:206)뒀을 무릅써야 하는 대상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들의 몸은 전

28) 먹고 살기의 욕망을 최대의 과제로 던져준 전쟁은 여성에게 생계 담당자의 지위를 부여 해주었고 이는 젠더를 탈안정화 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 와 “아프레 걸”(전후여성) 표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제16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178~182면 참조.) 아프레apres란, 뒤後를 뜻하는 불어로, 2차 세계대전 이후라는 의미와 함께 전후의 허무주의적인 정서나 분위기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그러나 당시 남한에서는 댄스에 흥미를 가지며 여성의 권리나 남녀평등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는 현대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리고 아프레 걸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이미 그러한 여성들을 경멸하고 비하하는 시선이 기입되어 있었다.(장세진, 앞의 책, 214~215면.)

29) 전쟁이야말로 대단한 ‘평등화 장치’의 하나라는 브루스 커밍스의 말의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다. 특히 피엑스 걸은 전통적 여성성으로부터의 이탈을 암시하는 것이자 그로 말미암은 새로운 사회적 통제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징표라고 할 만하다. 전시 여성 가장의 양면성과 피엑스 걸의 탄생에 대해서는 신수정의 글을 참고할 것.(신수정, 앞의 글, 62~67면 참조.)

시 체제 하 미국 군대와와의 경제적, 성적 결합이 뒤엎힌 의미의 각축장이었다.³⁰⁾ 하여 피엑스 곁과 미군의 연애는 여성 개인이 꿈꾸는 ‘유토피아-아메리카’에 대한 선망의 차원에서 그칠 수 없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강대국 남성의 우월적 이미지와 한국 여성과의 성적 관계가 융합되자 그것은 ‘미국적인 것’의 가장 부정적 표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전시 여성이 미군과의 연애를 전근대적 한국 사회에서의 탈주를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면, 근대적 여성상과 욕망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그 에너지는 분명 유의미하다.

박완서는 <그 산>의 ‘티나 김’과 <나목>의 ‘다이아나 김’을 통해 피엑스 곁과 미군의 연애를 조명한다. 그녀들은 국제결혼을 어설프게 꿈꾸다가 겁을 먹고 달아나는 피엑스 곁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미군들과 사교하며 구설수를 만들어낸다.³¹⁾ 이들은 공통적으로 전근대적 가족의 형태에서 소외되어 있다. 불임인 티나 김은 남편에게 첩을 얻어주고 다이아나 김은 남편을 본부인에게 ‘양보’하고 실상 아이가 둘 딸린 과부로 살아간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에도 살아남은 민족주의적 가부장제도는 그녀들의 경제력과 영어실력이라는 근대적 능력을 잠식시킬만큼 끈질기다.

박완서는 <그 산>을 통하여 미군 피엑스의 총책임자 캐년 대령과 티나 김의 연애를 보여준다.³²⁾ “하나같이 농염한 화장이 애처로워 보일 정도로

30) 앞의 글, 68면.

31) 『나목』의 어린 피엑스 걸 미숙은 잠시 미군과의 결혼을 통해 “시궁창”과 같은 한국의 탈주를 꿈꾼다. 그러나 곧 미군과 아이를 갖는 성적인 과정과 이른바 “혼중”을 낳게 될 거라는 생각에 바로 꿈을 거둔다.(2:118-123) 피엑스 곁들 중에서도 티나 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녀가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엔 아내나 여성으로서의 전근대적 낭만이 아닌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로운 자신이 있다.

32) 『나목』(1970)의 발표가 『그 산』(1992)보다 약 20년 정도 더 빠르다. 그러나 『그 산』의 경우 박완서의 피엑스 경험이 자전적으로 드러나 있는 반면, 『나목』은 소설적 허구가 가미되었으므로 본고는 피엑스 경험에 있어 오히려 『나목』이 『그 산』의 변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간다. 이를테면 『그 산』이 티나 김이 박완서 자신이 보고 겪은 피엑스 여인의 재현이라면 『나목』의 다이아나 김은 티나 김이 작가의 의식을 통해 극적으로 변형된 인물에 가깝다. 하여 본고는 『그 산』의 티나 김을 중심으로 탈주의 욕망을 살펴본 후 『나목』의 다이아나 김으로의 변주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젊은 아가씨들”(2:187) 사이에서도 비교적 나이가 많은 티나 김은 미군들을 ‘능숙하고 기술적으로’ 유혹한다. 사실 해방 전 그녀는 피엑스 결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새댁이었다. 그러나 징용 나간 남편의 늦은 귀환으로 미 군청정 장교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시작했다. 그녀는 “씩씩한 성품과 아무 걸 입어도 품격이 있어 보이는 옷태와, 한번 맛보기만 하면 못 하는 게 없는 음식솜씨”(2:211), 그리고 천부적인 언어 능력을 꽃피운 결과 피엑스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다. 남편이 돌아온 후에도 그녀는 피엑스에 남아 가장의 역할을 맡는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녀로서는 경제권을 쥐는 게 더 전략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피엑스 안에서 그녀는 말 그대로 ‘적극적인 자기 상품화’의 화신이라 할 수 있다. 육감적인 몸매로 호객을 하는 ‘살아 있는 마네킹’(2:194)이라는 점은 여타의 피엑스 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피엑스 안에서 그녀의 가장 중요한 작업은 캐년 대령과의 연애다. 그리고 그 연애는 낭만이나 열정과 거리가 먼 일종의 ‘판매’적 성격을 띤다.³³⁾

작품 속에서 티나 김을 수식하는 단어는 바로 ‘우아’ 혹은 ‘품위’ 등이다. “티나 김이 검은 플레어스커트를 우아하게 휘날리며”(2:203), “얼굴의 잔주름과 인자한 미소와 듣기 좋은 영어는 그녀를 관능적이라기보다는 품위 있게 보이도록 했다.”(2:194), “스캔들을 확인시켜주는 게 아니라 정화시켜줄 것 같은 춤솜씨였다.”(2:207) ‘나가 티나 김에게 쏟는 찬사들은 그녀가 캐년 대령을 어떻게 사로잡고 연애 판매에 성공했는지 보여주는 서술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판매에 대한 대가는 단연 ‘미국행 티켓’으로 ‘아메리카 아케이드’라는

한다.

33) 열정적 사랑은 타자와의 감정적인 연루가 너무도 강렬히 스며들어서 그 사람 또는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통상적 책무를 무시하게 만든다. 낭만적 사랑의 이상은 자유와 자아실현을 결합시켜가면서, 출현하는 이 결합 속에 스스로를 직접 포함시킨다. (앤소니 기든스, 『현대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 역, 새물결, 2003, 76~79면 참조.) 이 두 사랑의 공통점은 애정이란 감정적 연루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박완서의 작품 속 미군과의 연애가 사랑이 될 수 없고, 될 수 없다고 믿는 건 ‘미국행 티켓’이라는 오염 때문이다.

피엑스 공간이 꿈꾸게 하는 ‘아메리카 유토피아’ 즉, ‘아메리칸 드림’의 다른 말이다.

연애편지와 함께 이민에 필요한 서류도 오갔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그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도, 그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캐년과 자기가 결백한 관계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했다. 순수한 우정이라는 거였다.

“캐년은 이용만 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몹쓸 년이지. 순진한 애를 이용해서 이민 갈 궁리나 하고 있으니. 그렇지만 어떡하니? 그 여자가 애까지 낳았잖아, 애 못 낳는 년이 비켜줘야지. (2:247)

티나 김은 캐년 대령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와 ‘연애’편지를 주고 받는다. 그 편지 안에 들어 있는 ‘이민 서류’는 티나 김과 캐년이 각각 어떤 가치를 교환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재미있는 점은 티나 김이 끝까지 주장하는 두 사람의 ‘순수한 우정’이다. 티나 김은 자신과 캐년의 관계를 ‘연애’가 아닌 ‘우정’으로 포장한다. 이는 티나 김이 의식적으로 ‘양갈보됨’을 부정하는 동시에 그녀가 짊어진 전근대적 족쇄를 증명한다. 이 족쇄는 티나 김의 탁월한 능력과 만나 스스로 남편의 첩을 얻어주게 하고 그들의 아이까지 모두 부양하는 기묘한 가장의 위치에 자리하게 한다. 그녀라고 해서 한국(가정)에 남아 있다간 언젠가 ‘개밥의 도토리’(2:206)가 될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그녀를 가장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건 그녀가 ‘한국의 현모양처의 표본’(2:207)처럼 구는 것을 아니꼬워하며 그녀에게 ‘양갈보’의 낙인을 찍는 한국인들의 시선일 것이다. ‘아메리카행 티켓’의 전제 조건이 미군의 정부, 바로 ‘양갈보됨’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군과 한국인의 남녀관계는, 국가 간 위계를 그대로 답습하여, 인간 대 인간의 감정 이전에 ‘미국행 티켓’이라는 시혜와 대가로서의 ‘갈보짓’이 관념적으로 자리 잡는다. ‘애 못 낳는 년이 비켜줘야지’라는 말은 기실 이러한 억압적 세계에 대한 탈주 욕망의 비틀어진 표현인 것이다.

“이민보다 결혼 수속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수월해질 텐데.”

티나가 버럭 화를 내면서 캐년하고의 결백을 주장했다. 내 표정에 그녀와 거짓에 대한 혐오감이 드러난 듯했다. 별안간 일본식의 잠옷 가슴을 헤치더니 브래지어를 걷어 올렸다. 그렇게 풍만해 보이던 그녀의 가슴이 뜻밖에 담벼락 같았다. 브래지어 캡 속에서 살색 스펀지로 된 젓꼭지까지 달린 두 개의 유방을 꺼내 내 코앞으로 들이댔다.

“이걸 보고도 못 믿겠니. 양키가 얼마나 육체미를 밝히는데 온통 가짜로 꾸미고 사는 여자를 무슨 재미로 데리고 자겠냐? 너도 생각을 해봐, 응.”

거의 애원조였다.(2:247)

티나 김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 장면은 가히 압권이며 그녀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그녀는 극구 자신의 욕망이 ‘국제결혼’이 아닌 ‘이민’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뜻밖에 담벼락 같은’ 자신의 가슴을 내보인다. 살색 스펀지로 된 가짜 유방이 떨어져 나온 순간, 역설적으로 그녀는 스스로를 인간상품으로 규정한다. 육체미를 밝히는 양키가 ‘이’ 가슴을 좋아할 리 없다는 것. 이것은 마치 분절 가능한 마네킹을 두고 하는 말과 같으며 ‘연애의 가능’이 곧 ‘상품으로서의 가능’과 다를 바 없음을 의미한다.³⁴⁾ 티나 김은 자신이 ‘가짜 상품’이며 그렇기에 ‘연애 상품’이 아닌 ‘우정의 상대’라는 논리를 구사한다. ‘양갈보됨’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 시도는 곧 ‘상품화’의 구도에 갇히는 결과를 낳는다. 사면초가 같은 이 아이러니가 가장 강력하게 말해주는 건 전근대적 가치에 벗어나는 여성을 향한 한국사회의 배타적 시선일 것이다.³⁵⁾

34) 벤야민에 의하면 여성의 인간상품화는 유행과 관련이 깊다. 경탄의 대상인 마네킹이 분리 가능한 부분들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행은 살아 있는 육체의 물질주의적 파편화를 조장한다. 인간상품의 극단인 실제 창녀는 유행 의상의 상품 매력의 의존하여 자신의 살아 있는 육체를 사물의 형태로 판매한다.(수잔 벅 모스, 앞의 책, 138~139면 참조)

35) 이 부분은 ‘양공주’에 대한 배타적 시선과 결을 같이 한다. ‘양공주’를 향한 멸시의 시선

그러나 끝내 캐넌은 국제우편을 통해 티나 김에게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다. ‘또 한 아이의 아빠’(2:248)가 되었다는 캐넌의 변명은 참으로 절묘하다. 티나 김이야말로 ‘애 못 낳는 년’에서의 탈주를 꿈꿔 오지 않았는가. 캐넌은 여전히 미국이 ‘다양한 가능성’(2:248)의 나라라 하지만 그녀에게 ‘아메리카’는 가정의 가치를 앞세우는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기에 유토피아가 아니다. 그 순간 우아함과 품위를 버리고 무너지는 티나 김은 모습은 그녀가 믿던 ‘아메리카 유토피아’의 허위와 ‘연애 상품’을 통한 탈주의 실패를 드러낸다.

<나목>의 다이아나 김이 인간상품을 이용한 탈주 욕망을 내비쳤다면 <그산>의 티나 김은 인간상품화 자체에 더 가까운 인물이다. “팔꿈치를 <쇼케이스> 위에 고이고”(1:115)있으면 “움켜쥔 검은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빨간 손톱과 다이아가 엇비고 그것이 비할 데 없이 아름답”(1:115)답다는 다이아나에 대한 묘사는 상징적이다. 그녀는 티나 김과 비교할 수 없이 악착같이 달러를 밝히고 ‘연애 장사’를 할지언정 한 남자를 상대로 지고지순한 기대를 걸지도 않는다. 이경에게 본국으로 돌아간 애인 ‘바브’에게 보낼 연애편지를 대필시킬 때도 오로지 그녀가 원하는 것은 돈과 선물뿐이다. 이 태도는 바브가 다이아나를 편지로 부쳤을 때도 변하지 않는다.

「홍 결혼? 난 국제결혼에 허겁지겁 할 뜻내기 같보 시절은 벌써 지난지 오래야. 미국 가서 업신받고 살 바본 줄 알아? 어림도 없지. 난 여기서 돈 벌어서 남을 실컷 업신여기며 살고 싶단 말야. 난 돈이면 다야.」

「그건 그렇고 다이아는 진짜로 진짠가요?」

「별써 금방에서 감정시켰어. 그리고 너한테로 온 거야.」

「그럼 언니하고 바브하곤 어떻게 되는 거죠?」

「뻘이 어떻게 돼? 다이아가 진짜라고 아이 러브 유까지 진짠 줄 알아?」(1:58)

은 실은 점령군으로서의 아메리카에 대한 착잡한 양가감정의 배출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양공주’라는 기표는 미군 기지와 관련된 부정적 함의들이 집합할 수 있는 하나의 편리한 상징으로 기능했다.(장세진, 앞의 글, 408면.)

다이아반지가 ‘아메리카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증표라면 아마 <그 산>의 티나 김은 이를 오랫동안 꿈꿨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다이아를 받은 다이아나 김은 ‘아메리카 유토피아’의 허위를 꿰뚫은 지 오래인 듯하다.³⁶⁾ 과거의 자신을 ‘국제결혼에 허겁지겁 할 뜻내기 같보’라고 지칭하는 부분을 보면 그녀는 언젠가 티나 김처럼 미군과의 결혼을 꿈꾸어 본 듯도 하다. 어쩌면 다이아나 김의 과거는 티나 김으로, 탈주의 실패를 염두에 둔 박완서가 변주해 낸 인물형일지도 모른다. 이 변화는 인간상품과 그에 대한 배타적 시선을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낸다. “다이아나 김이 검둥이와 똥구는 장면을 그려보기도”(1;107) 한다는 ‘미스터 황’의 시선이나 그녀에게 우아함이나 품위 대신 쇼윈도와 함께 빛나는 외적 아름다움만 포착해내는 이경의 서술이 그렇다.

한편 이경이 양과자점에서 우연히 만난 다이아나 김이 “땀사람같이 유순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아들들을 지켜보”(1;204)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수전노이자 양갈보라고 불리는 그녀가 훌륭한 어머니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이 모습은 티나 김이 기묘한 가정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탈주의 꿈을 접은 다이아나 김에게 고착된 ‘양갈보/어머니’의 이중성은 그녀를 ‘가짜투성이’(1;206)나 ‘빈 동굴’(1;206)과 같은 텅 빈 기표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티나 김과 다이아나 김을 단순히 ‘아메리카-아케이드’ 속 인간상품이나 탈주의 실패자들로 규정지을 순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근대의 억압적인 여성상에 대한 탈주의 욕망과 그에 걸맞은 근대적 능력과 생명력은 그 자체로 인간적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이아나 김이 가진 악착같은 경제력 역시 탈주 불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यो ‘돈’이라는 근대적 힘에 대한 본능적 인지였을 것이다. ‘아메리카-아케이드’라는

36) 신수정에 따르면, ‘다이아나’라는 이름과 ‘다이아’ 반지는 음성 상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호 구별되지 않는 동일시의 메타포다. 다이아나 김은 다이아에 환장한 여자다!(신수정, 앞의 글, 69면.) 다이아나 김은 다이아에 환장할 뿐, ‘아메리카’에 대한 환상은 치루지 오래다.

피엑스 공간은 전시 한국인을 상품화시키며 한미간의 위계를 표상했다. 그러나 그 공간은 한국인들에게 전시의 현실을 인지하며 탈주의 꿈을 꿀 기회이기도 했다. 박완서가 간파한 건 바로 이 이중성으로 전시 한국인과 미군 피엑스를 살아 있는 소설로서 우리에게 남겨 놓았다.

5. 결론

박완서의 소설은 한반도에 ‘미국’이 유입되기 시작한 6·25 전쟁기의 풍속 속에서 발현된 사적인 내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역사의 증언과 다름없다. 본고는 박완서의 소설을 통해 전시 서울의 중심에 자리했던 미군 피엑스의 존재 형식과 그 안에서 일어난 한국인 인간상품화 현상을 통해 전시 한국인의 내면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해방기와 6·25 전쟁은 한국인에게 미국의 이미지를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때문에 서울 명동의 미군 피엑스 공간과 그 곳의 ‘미제’들은 특별한 상징가치를 부여받았다. 유리 쇼윈도의 특성에 힘입은 이 상품들이 야말로 곧 ‘유토피아 아메리카’의 표상이며 그것을 전시하는 피엑스는 별세계와 같은 ‘아메리카-아케이드’였다. 전시 한국인은 그 앞에서 매혹당하는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근대의 자기(국가) 이해에 있어서 ‘자기 타자화’라는 경험을 겪게 된다.

‘아메리카-아케이드’의 타자화와 한국인 소외 시스템은 ‘고아와 상이군’ 그리고 ‘피엑스 걸’을 ‘인간상품’으로 존재하게 한다. ‘고아와 상이군’은 곧 연민을 판매하는 상품으로 팔아먹을 것이 고갈된 한국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 일방향적 연민은 전시 한국인에게 굴욕감과 함께 국가 간 위계의 역학을 내면화하게 한다. ‘피엑스 걸’은 근대적 능력을 갖춘 전후 가장으로 연애의 판매를 통해 전근대적 가치관에서의 탈주를 욕망한다. 그녀들의 실패는 ‘유토피아 아메리카’의 허위의 민낯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하위주체의 탈주 에너

지를 성찰하게끔 한다.

박완서의 소설은 사적 역사의 장이라는 소설의 본령을 잃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으로써 시대의 부름에 응한다. 박완서가 이룩한 이 층위는 그의 소설을 살아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 앞에 남겨 놓는다.

참고문헌

박완서, 『나목』, 세계사, 2003.

_____,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세계사, 2003.

강수미, 『아이스테시스-발터벤야민과 사유하는 미학』, 글항아리, 2011.

강용운, 『박완서 작품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기억과 주체의 형성』, 『인문학술』 1권 1호, 인문학술원, 2018, 123~163면.

강진호, 『기억 속의 공간과 체험의 서사』, 『아시아문화연구』 제28권,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2, 1~19면.

김윤식, 『(내가 읽은) 박완서』, 문학동네, 2013.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결”(전후여성) 표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제16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177~209면.

나보령, 『허물어진 “문 안”』,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9권 4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85~133면.

박철수, 『박완서 소설을 통해 본 1970년대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주거 공간의 인식과 체험』,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30권 3호, 대한건축학회, 2014, 191~201면.

신수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동대문시장의 젠더정치학과 전후 중산층 가정의 균열』,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1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269~300면.

_____, 『박완서 소설과 전시 여성 가장의 미군 PX경험』,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7권 2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51~81면.

오창은, 『아파트 공간에 대한 문화적 저항과 수락』, 『어문론집』 제33권, 중앙어문학회, 2005, 163~190면.

- 유영익, 『한국인의 대미인식』, 민음사, 1994.
- 이평전, 『한국전쟁의 기억과 장소 연구』, 『한민족어문학회』 제65권, 한민족어문학회, 2013, 869~895면.
- 장세진, 『상상된 아메리카』, 도서출판 푸른역사, 2012.
- 전승주, 『1950년대 한국 문학비평 연구: '전통론'과 '민족문학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23권 0호, 민족문학사학회, 2003, 300~331면.
- 정혜경, 『1970년대 박완서 장편소설에 나타난 '양옥집' 표상』, 『대중서사연구』 제25호, 대중서사학회, 2011, 71~91면.
- 차미령, 『생존과 수치-1970년대 박완서 소설과 생존주의의 이면』,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7집, 한국현대문학회, 2015, 445~479면.
- 발터 벤야민, 『아케이드 프로젝트 1』, 조형준 역, 새물결, 2005.
-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김지동 역, 일월서각, 1986.
- 수잔 벅 모스,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김정아 역, 문학동네, 2004.
-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 앤소니 기든스, 『현대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 역, 새물결, 2003.
- <http://www.si.re.kr> {cited 2019.06.24.}.

Abstract

The U.S. Representation and Human commercialization
of the U.S. Army's PX in Park Wanseo's Novels

Choi, Sun-Young*

In the history of Korean novel, Park Wan-seo penetrated the literary barren land of Korean War, testifying about the daily life conditions and the wounds of the people during wartime. Park Wan-seo's experience of the U.S. Army Post-eXchange(PX), where she worked, is revealed in detail through her multiple works. The PX in the 1950s was the first "American space" encountered by a wartime Korean. The mental experience of longing and humiliation manifested in it is a tantamount to the testimony of a wartime Korean facing a new modern order. Therefore, this article will take a look at the form of existence of PX's displayed in Park Wan-seo's works "A bare tree" and "Would the mountain really be there?" and Korean presence in it.

The Liberation Day and the Korean War elevated the U.S. as a pillar and blueprint for Korea's survival. In the process, the PX located in Myeong-dong, Seoul, and the U.S. products, which were sold there, were given a new symbolic value. If U.S. goods, which have a utopian nature and are found behind the display windows, represent the "Utopian America", then PX, which flaunts and displays U.S. goods is tantamount to "America-Arcade". In front of it, wartime Koreans experienced both, fascination and relative deprivation. This difference shows the sense of hierarchy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also represents the current changing modern time, which made Koreans imprisoned into the phenomenon of self-othering.

Meanwhile wartime Koreans are represented as "human goods" in the PX. This is more of an expression and an internalized perception in the

* Myongji University

modern space of 'arcade', rather than a schematic result of making oneself other. The image of the orphanages' direct store in the PX is a 'patriotic product' that induces the U.S.'s 'donation'. The Korean extreme situation and the pain of war, in which they have run out of things to sell, remain a humiliation to wartime Koreans and this humiliation is soon being internalized by wartime Koreans, along with the dynamics of hierarchy between the countries. This remains a metaphor and representation of modern Koreans'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world and their self-awareness.

PX Girl, a sales representative of PX, is a 'post-war impersonator' and belongs to Aprèe Girl, which is at that time known for the economic power and good English skills. On one side women are considered as mannequins by the U.S. military, and on the other side they are stigmatized as 'Yanggalbo' (i.e. foreigners' prostitutes) by South Koreans. Excluded by their pre-modern values, these women sell 'love goods'. Through their love affairs with the U.S. military, they dream of getting a ticket and escaping to U.S.A. The repeated failure of the PX girls, who did not manage to defect, confirms the falsity of 'Utopian America' and leaves them empty-handed. However, the existential significance of the PX girls can be found in terms of the breakout energy in pre-modern society and their achievement of the modern ability.

Key Words : PX, Arcade, American Dream, Human Products, PX Girl, Escape,
Phantasmagoria, compassionate products, love products, modern times,
fetishism

<필자소개>

이름 : 최선영

소속 :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전자우편 : fermata_sy@naver.com

논문투고일 : 2019년 7월 7일

심사완료일 : 2019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9년 8월 26일